

SF와 좀비 서사의 감염 상상력*

최성민**

1. 들어가며
2. 마스크, 그리고 감염의 상상력
3. SF 서사에서의 감염 상상력
4. 좀비 서사의 감염 상상력
5. 나오며

국문초록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다양한 예방과 방역의 조치들 이면에는 ‘내가 감염될지 모른다’는 공포와 ‘누군가가 나를 감염시킬지도 모른다’는 공포, 두 가지 공포가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잠재의식은 감염 상상력 위에서 이루어진다. 본 논문은 우리의 감염 상상력에 영향을 미친 SF 서사와 좀비 서사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SF 소설과 영화들이 ‘감염’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였는지, 그리고 좀비 서사들은 ‘감염’과 그 공포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메리 셸리의 소설 『최후의 인간』은 감염병의 공포가 인류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 역설을 드러내주었다. 영화 <컨테이션>과 <감기>는 감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4058286)

또한 이 논문은 2021년 4월 24일 대중서사학회 학술대회(온라인) “감염의 역사적 상상과 대중문화”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완한 것이다. 학술대회에서 지정 토론을 맡아주신 고훈 선생님과 그밖에 질문과 조언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학술연구교수

병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폭동과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좀비 서사는 감염이 주는 공포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장르이다. <부산행>을 비롯한 연상호 감독의 좀비 3부작은 가까운 주변 사람이 가장 위협적인 감염원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우리는 SF와 좀비 서사를 통해, 감염병 앞에서 인류가 견뎌야 할 연대의식과 윤리의식, 공감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서사를 통해 우리는 감염 상상력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감염 상상력은 감염 확산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이해의 기반이 되는 인식 체계가 된다.

(주제어: 과학소설(SF), 좀비, 코로나19, 팬데믹, 감염, 감염 상상력)

1. 들어가며

2019년 12월 31일, 최초로 공식 보고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적으로 팬데믹 선언을 한 것이 2020년 3월 11일이었다. 그리고 계절이 네 번 다시 바뀌며 1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통계 정보 사이트 월드오미터¹⁾에 따르면, 2021년 4월 18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는 1억 4천만 명이 넘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300만 명을 넘어섰다. 감염된 확진자와 사망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피해 외에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통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전 지구적으로 거의 모든 이들에게 미쳤다. 교육, 소비, 외식, 여행, 여가, 가사, 의료 등 거의 모든 일상의 생활이 피해의 자장 안에 놓였다.

1) <https://www.worldometers.info/>(접속일: 2021.4.18.)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통계 자료²⁾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내 사망 원인 1위는 심장 질환으로 69만 명, 2위는 암 질환으로 59만 8천 명이었으며, 3위가 코로나19로 34만 5천 명이었다. 월드오미터 통계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 수는 심장 질환과 암 질환에 미치지 못 하였다. 그러나 2020년만을 놓고 보았을 때, 코로나19의 공포에 대한 공포는 심장 질환과 암 질환에 대한 공포를 훨씬 압도했을 것이다. 누군가는 이러한 통계를 보고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과도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심장 질환이나 암 질환과 달리, 코로나19가 '감염병'이라는 점이 공포의 핵심 원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염병'이라고 불리던 질병 명칭은 2009년 기존의 '전염병 예방법'이 '기생충 질환 예방법'과 통합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감염병'으로 바뀌 부르게 되었다.³⁾ '법정전염병'이란 명칭도 '법정감염병'으로 바꾸고, 비전염성 감염병까지 포괄하여 예방과 관리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부수적으로는 '전염'이라는 표현 자체가 본의 아니게 질병의 매개가 되는 개인의 죄책감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거나 질병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증폭시킨다는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2) Farida B. Ahmad et al., "Provisional Mortality Data - United States, 2020", *MMWR* 70(14), CDC, 2021, pp.519-522.

https://www.cdc.gov/mmwr/volumes/70/wr/mm7014e1.htm?s_cid=mm7014e1_w (2021.4.18. 접속.)

3) <앞으로 전염병 대신 감염병으로 불러야>, 『마이데일리』, 2009.12.31.

<https://news.v.daum.net/v/20091231140112442>(2021.4.18. 접속)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로는 다음과 같다.

- 감염(感染): 병원체인 미생물이 동물이나 식물의 몸 안에 들어가 증식하는 일.
- 전염(傳染): 병이 남에게 옮음.

일반적으로 '감염(感染)'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작은 병원체가 사람이나

사람이나 동물, 혹은 오염된 물이 매개가 되어 감염병이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14세기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은 ‘악마의 질병’ 취급을 받았다. 여러 차례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콜레라는 ‘나쁜 기운’에 의해 퍼져나간다고 보았다. 불결하고 더러운 빈민들의 생활공간이나 혼자 사는 과부의 집이 유행의 근원처럼 여겨졌다. 세균이 사람에게 감염되어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9세기 말, 프랑스의 파스퇴르와 독일의 코흐에 의해서였다. 누구나 감염병에 감염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숙주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각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더 나아가 ‘봉쇄(lockdown)’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이 낯선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감염병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봉쇄 조치가 너무 뒤늦게 취해지기도 했고,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코로나19는 허구이거나 기획된 것’이라는 음모론적 주장도 끊이질 않고 있다. 비합리적인 주장들을 논외로 하고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었다.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염려도 크겠으나, 개인의 차원에 국한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내가 감염될지

동물, 식물 등에 들어온 뒤에 증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염’이라는 것은 감염된 사람 간의 접촉과 전파를 통해 병원(病因)이 옮겨지고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급식이나 식당에서 오염된 음식물을 다중이 섭취하여 식중독균에 노출된 후 설사나 구토가 나는 경우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이지만, 사람을 매개로 한 ‘전염’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모기를 매개로 한 말라리아나 뇌염은 사람 사이에서 전염되지는 않기에 엄밀히 말해 ‘전염병’은 아니지만, 국가와 사회가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감염병 대상이다.

모른다는 공포', 혹은 '누군가가 나를 감염시킬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을 것이다.

두 가지는 거의 같은 말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공포에 기반한다.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하는 것은 바로 그 '공포'의 기저에 있는 '감염의 상상력'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염원으로부터의 공포는 과학적 사실보다 감염의 상상력에 근거한다.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감염의 상상력을 경험했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2. 마스크, 그리고 감염의 상상력

돌이켜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 정책 이전에도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대책은 존재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20년 1월 23일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불리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발표하였다. 그 중 첫 번째 수칙은 '손씻기'였고 두 번째는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기'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수칙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자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이었고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한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손씻기' 수칙은 가장 기본적인 개인 위생 지침이었다.⁵⁾ 두 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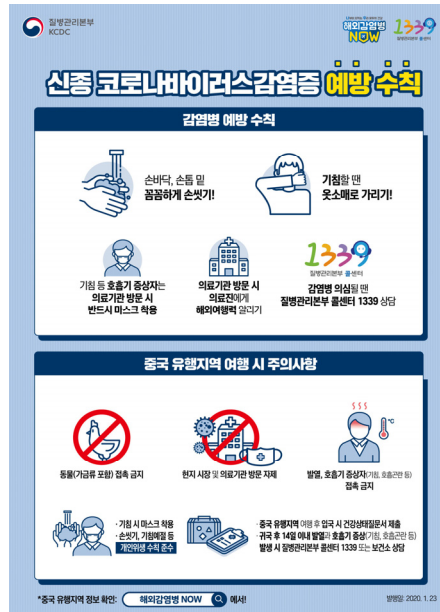
5) 사실 손씻기는 요즘 개인 위생,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이것도 그리 오래된 생각은 아니다. 1840년 오스트리아의 의사 제멜바이스가 출산의 순간 '아이를 받는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으면 산모의 사망률이 크게 낮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의사들조차 위생 관념이 없었다. 그때 의사가 손을 씻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된 것은 타인을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박재영, 『개념의료』, 청년의사, 2018, 47쪽.

째 수칙과 세 번째 수칙은 유증상자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수칙은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감염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2015년 메르스(MERS) 유행 당시, 평택과 서울의 병원 몇 곳이 감염 확산의 근거지가 되었던 것을 교훈삼은 것이다.

초기 예방 수칙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일반인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 크게 강

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스크는 유증상자에 한하여, 그리고 의료기관 방문 시에 한하여 착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증상이 없는 사람이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스크의 효과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병원(病原)이 비감염자의 인후로 들어가 감염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호흡기 유증상자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주는 이로움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벗는 과정에서 오히려 감염의



〈그림 1〉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작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포스터 (2020.1.23.)

위험이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위생 수칙인 ‘손씻기’를 게을리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팬데믹 선언 이후, 전세계적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행 시기와 강제적 요건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증상이 있든 없든, 마스크 착용이 당연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마스크는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백신’ 역할을 해 왔다.

초기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 국가들과 달리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했던 것은 팬데믹 선언과 봉쇄 속에서 자국내 보건용 마스크의 제조나 유통, 물량 확보가 어려웠던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스크가 자신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어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아시아권, 적어도 한국의 대중들은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를 자기 방어적 도구로서 인식하고 그것을 착용하려 했다. 향사나 미세먼지 경험이 작용한 것이다. 반면, 마스크는 유증상자만 쓰면 된다거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인식은 마스크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갖게 했다. 위에서 살펴본 질병관리본부의 2020년 1월 예방 수칙은 이런 소극적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이것이 다수 의학 전문가들의 마스크에 대한 입장이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기존의 호흡기 질환과 달리, 무증상감염자를 통해 감염이 확산되고 일부 취약 계층이 감염되는 경우에는 치명적



〈그림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캠페인 광고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당연시되고 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상이한 입장은 근본적으로 ‘감염 상상력’이 달랐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나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상상력은 ‘봉쇄’라는 해결책을 떠올리게 했다. ‘봉쇄’는 저쪽은 오염되었고 이쪽은 아직 오염되지 않았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배타적 사고가 기반이 되는 감염 상상력이다. 반면 ‘마스크’를 강조하는 쪽은 ‘내가 감염될 수 있다’는 상상력에 기반한다. 이것은 어디든 오염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누구든 감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결국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는 것이다.⁶⁾ 이러한 감염 상상력은 마치 자기만 보호하려는 이기적인 태도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방어적 사고는 개인을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고, 내가 다시 또 누군가를 감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공동체적 의식과 연계된다. 반면, 유증상자나 병원 방문자를 구별 짓고 이들에게만 마스크 착용을 하라는 입장은 ‘의료진’의 입장에서 타인을 배타적인 ‘감염의 매개’나 ‘전이 가능성을 지닌’ 숙주로 인식한 것이다. 요컨대, ‘내가 감염될 수 있다’는 ‘마스크’의 상상력과 ‘누군가가 나를 감염시킬지 모른다’는 ‘봉쇄’의 상상력으로 대별할 수 있겠다.

여기서 사용한 ‘감염 상상력’이라는 용어는 감염 확산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이해의 기반이 되는 인식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감염, 혹은 전염의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의 인식과 상상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상상력은 더 나아가 사회와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도 관련된다.

6) ‘자기 방어적 감염 상상력’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개인이 감염될 경우, 감염된 사람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 데에 대한 과도한 책임과 죄의식이 부여될 우려가 있다. 종종 확진자들이 ‘죄송하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그런 예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재래드 다이아몬드는 『총, 균, 쇠』에서 질병의 감염과 확산이 제국과 문명의 침략, 사회의 팽창과 흡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2017년에 나온 『전염의 상상력』이란 책에서 ‘전염 상상력’, 혹은 ‘감염 상상력’의 개념이 등장한 바 있다. 이 책의 「총론: 전염을 상상하기」에서 대표저자인 박길성은 ‘전염’은 의학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질병의 물리적, 생물학적 전달과 같은 부정적 의미에서부터 혁신의 전염, 행복의 전염과 같은 긍정의 은유를 포괄하여, 인문사회과학 전 분야로 의미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염은 인간의 공포와 취약성을 말해주며, 때로는 인간의 무지와 무기력을 방증”한다. 하지만, “문화, 감정, 규제, 건강 등의 확산 메커니즘에 적용”시킴으로써, 사회 내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⁷⁾ 여기서 상상력은 두 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상을 확장시킨 ‘대상으로서의 전염’과 사회적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의 전염’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상력을 적용한다면, 예컨대 감염병의 확산과 전파 과정이 사회적 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물론, 사회적 이슈의 전파나 루머의 확산까지도 ‘전염’의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⁸⁾

본 논문에서는 사회 일반의 현상들까지 ‘감염 상상력’을 적용하여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SF 소설과 영화에서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의한 ‘감염’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했는지, 그리고 좀비 서사들은 ‘감염’

7) 박길성 외, 『전염의 상상력』, 나남출판, 2017, 10-12쪽.

8) 서사텍스트의 소통 과정에서 저자와 독자 사이에서도 일종의 ‘서사적 감염’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얼리티 전략을 설명한 것은 다음 논문을 참조. 최성민, 「판타지의 리얼리티 전략과 서사적 감염: 소설 『흡혈귀』와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5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19, 397-428쪽.

과 그 공포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감염 상상력’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⁹⁾ 그것은 궁극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혹은 감내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를 상상해보는 과정이 될 것이다.

3. SF 서사에서의 감염 상상력

SF는 말 그대로, 과학적 허구를 뜻한다. 과학에 기반한 감염병의 공포는 SF의 오래된 주요 소재였다.¹⁰⁾

허버트 조지 웰스의 고전 SF 소설 『우주전쟁』(1898)에는 외계인의 침공으로 멸망 위기에 빠진 지구인의 상황이 펼쳐진다. 소설 속 외계인들은 화성에서 온 생명체였다. 문어처럼 생긴 화성인들은 지구인을 잡아 그 피를 먹기로 삼는다. 화성인들은 인간 농장을 만들어 인간을 사육하면서 또한 인간을 해친다. 파멸적 상황으로 치닫는 지구인들의 위기는

9) 최정민은 영화 〈아웃브레이크〉의 사례를 예시로 삼아, 전염병이 발병한 상황을 묘사하는 ‘발병 서사’는 마치 전자현미경이 병원균을 포착하듯, 보이지 않던 적이나 잠재적 위협 요소를 ‘보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며, 실제적 적을 상상하도록 만든다고 말한다. 그리고 영화 속의 과학자들은 사회 변화의 흐름과 그 변화를 가로막는 세력을 드러내는 지도를 보여주듯, 서사를 이끌어나가게 된다고 말한다. 최정민, 『전염병의 서사와 가상공동체』, 『인문언어』 10, 국제언어인문학회, 2008, 367-389쪽.

10) SF 소설이나 영화에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빈번한 소재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SF 텍스트들을 감염병이라는 키워드로 엮어 분석한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개별 텍스트들에 분석이나 몇 개의 텍스트를 비교한 연구들 정도만 눈에 띈다. 박선주, 『메리 셸리의 『최후의 인간』에 나타나는 전염병과 근대 정치』, 『인문논총』 78권 1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363-392쪽; 최은영, 『한국 영화에 나타난 감염의 은유 방식 연구: 〈감기〉와 〈부산행〉을 중심으로』, 『건지인문학』 26,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401-421쪽; 이윤중, 『바이러스의 살육성: 〈괴물〉과 〈감기〉의 기생체』, 『영화연구』 87, 한국영화학회, 2021, 253-288쪽.

의외의 상황에 의해 해결된다. 지구의 병원체가 화성인들을 감염시키게 되고 결국 화성인들은 지구로부터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화성인이 지구를 침공한다는 것도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상상력이었겠지만, 감염으로 외계인이 물러간다는 결말의 전개는 꽤 참신한 상상력이었을 것이다. 코흐와 파스퇴르에 의해 세균에 의한 감염의 메커니즘이 밝혀진 것이 19세기 말이었다는 점, 병균이 제국주의 정복의 중요 요인이었다고 하는 『총, 균, 쇠』가 처음 출간된 것이 20세기 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주전쟁』이 보여주는 감염 상상력은 놀라울 정도이다. 외계인과 지구인이 면역 체계가 다를 수 있음을 핵심적 반전 요소로 삼았다는 점은 배타적 감염 상상력에 기댄 것이었다.

반면 『프랑켄슈타인』으로 유명한 메리 셸리의 1827년작 『최후의 인간(The Last Man)』¹¹⁾은 감염병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포스트 아포칼립스(Post Apocalypse)’의 고전(古典)으로 손꼽히는 이 소설에서는 원인 불명의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어 7년 만에 모든 인간이 소멸의 위기에 빠진다. 이 소설 속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라이오닐 버니(Lionel Verney)는 에이드리언과 클라라, 에블린과 함께 역병의 끄트머리에 살아남는다. 그들은 여전한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사력을 다하지만, 라이오닐은 결국 유일한 생존자가 되고 만다.¹²⁾

19세기에 종말론적 상상력이 발휘된 문학 작품은 적지 않았지만, 인류 종말의 원인을 감염병으로 제시한 것은 새로운 상상력이었다. 제국

11) 메리 셸리, 『최후의 인간 1, 2』, 김하나 역, 아고라, 2014.

12) 박선주는 라이오닐이 최후에 남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애초에 인간이 아니었기에 최후의 인간이 된 것이라고도 말한다. 미상의 과정에 의해 면역체계를 획득한 그는 이미 인간의 자연법칙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된 것이라는 관점이다. 박선주, 『메리 셸리의 『최후의 인간』에 나타나는 전염병과 근대 정치』, 『인문논총』 78권 1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387쪽.

주의의 폭력과 민주주의 혁명 열풍이 함께 힘을 키워가던 그 시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원균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상상력은 분명 특별한 것이었다. 메리 셸리는 전쟁이나 재난으로 한 순간에 인류가 사라지는 식의 파멸이 아니라, 조금씩 동료가 사라지고 점차 홀로 고립되어 가는 방식의 파멸을 상상했다. 감염병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빈부 격차도, 권력의 유무도, 나이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다. 모두가 감염될 수 있다는 보편적 공포가 모든 것을 압도한다.

이른 시일 내에 완벽한 평등이 찾아올 게 분명했다. 아름다움과 권력, 지혜 등은 부와 출생처럼 헛된 것이 되어버릴 터였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두려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손쉬운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없게 했다.¹³⁾

점점 퍼져나가는 역병의 공포는 역설적으로 평등을 가져왔다. 병균에 대한 인류의 취약함 앞에 부와 권력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다.

메리 셸리의 『최후의 인간』은 전체 3부, 2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8번째 장에서 라이오닐은 혼자가 되고, 29번째 장에선 홀로 남은 인류로서 최후의 성찰과 회고의 글을 남긴다. 라이오닐은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로빈슨 크루소의 운명과 자신을 비교한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가 나보다 행복했다고 단언한다. 그에게는 적어도 희망이 있었다. 헛된 희망도 아니었다. 결국은 배가 도착해, 그는 고향으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았던가.”¹⁴⁾ 그의 극단적 절망은 모두가 감염되고 있기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결국 철저히 혼자일 수밖에 없다는 고립의 공포에서 비롯된다.

13) 메리 셸리, 『최후의 인간 2』, 김하나 역, 아고라, 2014, 155쪽.

14) 메리 셸리, 『최후의 인간 2』, 김하나 역, 아고라, 2014, 373쪽.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공포를 그린 영화로는 <컨테이션>과 <감기>를 떠올려볼 수 있겠다. 두 영화는 코로나19의 현실을 예견한 영화로 언급되고 있다.

<컨테이션(Contagion)>은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2011년작으로, 케이트 윈슬렛, 맷 데이먼, 마리옹 꼬띠아르 등 화려한 출연진을 자랑하는 영화이다. 미국에서의 흥행과 평단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가, 코로나19 이후 재조명을 받은 영화다. 현재의 관점으로 이 영화를 보면, SF 영화로 분류하기 어려워보이지만, 10년 전 당시로서는 감염병의 역학(疫學)에 대한 과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영화였음이 분명하다.

영화에서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면서 심각한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는 과정이 펼쳐진다. 바이러스 감염자가 속출하는 대도시들에 봉쇄 조치가 취해지고, 사재기와 폭동도 일어난다. WHO와 미국 CDC의 연구자들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밝히고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와중에,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불안을 조장하거나 음모론을 제기하는 인물도 등장한다. 결국 28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바이러스는 백신이 개발되면서 종식을 앞두게 된다. 이런 과정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겹쳐지면서, 지금의 현실을 예견한 듯 보이기도 한다. 특히 영화의 결말부에 홍콩에서 박쥐와 돼지를 매개로 한 바이러스가 처음 출현하게 된 과정을 보여준 부분은 중국 우한의 수산시장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졌던 코로나19의 출현과 맞물려 기시감을 안겨준다. 그러나 우리가 겪은 방역과 역학 조사 과정에 비하면 오히려 허술해 보이는 묘사와 방역 전문가와 정부 관료들의 헌신적이고 기민한 대응은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을 안겨준다. 더구나 동물 실험 단계에서 몇 사람의 임상만 거쳐 백신이 개발되는 과정이라든지, 백신 투여 대상을 생일

날짜 기준으로 추첨하는 장면은 허무맹랑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비판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며, 감염병과 방역에 관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 정보를 많이 획득하게 된 이유도 있을 것이다.

〈감기〉는 김성수 감독, 장혁, 수애, 유해진 주연의 2013년 한국 영화다. 개봉 당시 과장된 묘사와 신파적 결말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지만, 감염병의 재난적 상황과 공포를 긴장감 있게 연출하였다는 평도 받으며 3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흥행 영화이기도 했다. 이 영화는 컨테이너 속에 숨어 밀입국하려다 사망한 시신들로부터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뒤, 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감염이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분당은 철저히 봉쇄되어 시민들이 집단 수용된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자 집단 매몰 조치까지 취해진다. 결국 폭동이 벌어지고 군인과 폭격기까지 동원되는 극단적 상황이 이어진다.

이 영화에서도 PCR 검사, 역학 조사, 봉쇄, 격리와 같은 최근에 친숙해진 방역 용어들이 등장한다. 전체적으로 재난 영화적 클리셰들이 많아서 SF가 갖추어야 할 과학적 인과 관계들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단 한 명의 항체보유자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사회가 안정된다는 결말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정치인들에 대한 묘사는 지나치게 선악 구도가 뚜렷하여 공감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인상적인 것도 몇 가지 있다. 〈컨테이션〉과는 달리, 분당 지역 외의 일반 대중들이 빠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며 감염 확산을 대비한다는 점, 영웅적인 소수 과학자의 노력이 아니라 시민 대중들의 요구와 의지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는 점이다.

〈컨테이션〉과 〈감기〉는 영화의 성격이나 주제 의식이 다르지만,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상상력과 플롯의 기반이 된 2010년대 초반 영화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를 거치며 소위 ‘감염 병X’에 의한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빈번했고, 그러한 예측에 기반하여 감염 상상력이 발휘된 영화인 것이다. 특히 두 영화 모두 중화권 지역, 특히 홍콩에서 바이러스가 퍼져나갔다는 묘사¹⁵⁾가 드러나 있는데, 코로나19가 야기한 지역혐오, 인종혐오의 맥락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또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은 이 영화들에서 갑작스러운 도시 봉쇄 조치가 야기하는 폭동과 충돌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두 영화 모두 백신의 개발과 사회의 안정으로 결말¹⁶⁾이 맺어지기는 하지만, 감염병 확산 국면에서 봉쇄는 가장 손쉬운 행정적 조치로 등장한다. 감염 지역 외의 시민들이 느끼는 ‘누군가가 나를 감염시킬지 모른다는 공포’가 봉쇄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두 영화 속에서 봉쇄는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컨테이션〉에서 전 세계 주요도시들로 감염이 순식간에 확산된다. 〈감기〉에서 분당 전역은 순식간에 초토화된다. 대다수의 인구가 밀집된 도시 공간,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에서 배타적 감염 상상력에 기반한 봉쇄 조치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2020년 가을 무렵 MBC에서 방송된 시네마틱드라마 〈SF8〉은 SF 단막극 드라마 여덟 편을 시리즈화한 것이었다. 1% 미만의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신선한 아이디어와 짜임새 있는 완성도에 대한 호평도 적지 않았다. 이 중, 〈우주인 조인〉 편은 김효인 작가

15) 〈감기〉에서는 밀입국한 필리핀 국적의 인물들로부터 바이러스가 시작되지만, 홍콩을 경유하여 들어왔다는 점에서 바이러스가 홍콩에서 온 것이라고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16) 〈감기〉는 면역을 확보한 생존자로 인해 백신 개발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컨테이션〉은 백신이 개발되어 제한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백신 접종은 추첨에 의해 특정 날짜가 생일인 사람부터 먼저 맞게 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백신을 둘러싼 납치, 강탈 등의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도 묘사되어 있다.

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이윤정 감독이 연출을 맡은 작품이었다. 이 드라마는 갑작스러운 감염병의 대유행 대신, 일상화된 감염 질환을 전제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극심해진 미래 시대에 미세먼지에 대한 항체주사를 맞은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사이의 차별적 계급이 뚜렷해진 시대상을 보여준다.

이 드라마에서 C는 미세먼지 항체주사를 맞은 클린(Clean) 계급이며, N은 그렇지 못한 계급인데, C의 기대수명은 100세, N의 기대수명은 30세로 설명된다. 평생을 C인 줄 알고 살았던 ‘이오’는 착오로 인해 자신이 항체 주사를 맞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는다. 반면 ‘조안’은 N이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라는 꿈을 이루기는 어렵지만, 비관적이기보다는 현실의 상황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인물이다. 두 사람 사이의 공감과 우정이 깊어지다가, 사실은 이미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어 있었음을 보여주며 드라마는 끝을 맺는다.

많은 SF들이 미래 사회에 대한 기술적 진보를 그려놓지만, 현재보다도 훨씬 뚜렷해질 계급적 차이를 전제해놓고 있곤 하다. SF 영화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블레이드 러너〉나 우생학적 세계관이 반영된 〈가타카〉, 그리고 최근 SF 영화 〈승리호〉 등에는 생활공간과 생활 방식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계급 구조가 고착화된 미래 사회가 그려져 있다. 감염병을 다루는 SF들은 계급적 차이가 부각되는 방식으로 미래 사회를 전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봉쇄, 격리, 백신을 경계 삼아 대립과 갈등이 조장되는 전망을 내포하고 있다. 감염병에 대해 ‘봉쇄’나 ‘단절’이 전제된 대응이 쉽게 채택되는 것은 그러한 배타적 감염 상상력에 기반하여 SF 서사가 구상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학과지성사에서 2020년 9월에 펴낸 SF 소설집 『팬데믹: 여섯 개의 세계』¹⁷⁾에는 국내 SF 작가 여섯 명의 팬데믹 관련 SF 단편 소설들이 실

려 있다. 이 중 인상적인 작품은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다룬 배명훈의 『차카타파의 열망으로』와 이종산의 『벌레 폭풍』을 꼽을 수 있겠다. 이종산의 『벌레 폭풍』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한 벌레가 유발한 공포와 질병으로 인해 실내 감금 생활을 3년이나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피해자가 속출한 상황이 묘사된다. 하지만 소설은 참고 인내한 덕분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포용의 마음을 지켜낸 덕에 다시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 희망적 세상을 전망한다.

배명훈의 『차카타파의 열망으로』는 비말로 인한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된 2020년 이후, 93년의 세월이 흐른 2113년, 비말이 쉽게 발생하는 거센 소리 자음 ‘츠, 크, 트, 표’이 사라진 시대를 다루고 있다. 소설은 2020년이 시대의 변곡점이 되었다면, 그것은 감염병 때문이 아니라, “혈오를 재발견하는 시기”¹⁸⁾였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소설의 결말에서 ‘달줄이’ 아니라 ‘탈출’이어야, ‘가다르시스’가 아니라 ‘카타르시스’여야 진정한 극복에 도달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규제나 통제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뜻이다.

만약 서한지가 한 말이 “달줄할래요?”였다면 나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을 것이다. 절대로. 하지만 그가 나에게 “탈출”을 권했기에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손을 잡고 말았다. (중략) 와, 정말 미친 문명, 아니 미친 문명이었다.¹⁹⁾

엄청난 팬데믹을 경험한 우리가 ‘감염 상상력’을 통해, 이 처절한 고통의 코로나19가 끝난 뒤에, 남겨되어야 할 교훈이 혐오의 확산이나 계급의

17) 김초엽 외, 『팬데믹: 여섯 개의 세계』, 문학과지성사, 2020.

18) 배명훈, 『차카타파의 열망으로』, 『팬데믹: 여섯 개의 세계』, 문학과지성사, 2020, 149쪽.

19) 배명훈, 『차카타파의 열망으로』, 『팬데믹: 여섯 개의 세계』, 문학과지성사, 2020, 157쪽.

고착화, 인종의 차별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군가를 배타적으로 격리시키거나 차단하는 것은 방역의 기초이지만, 성공적 전략이 되기는 어렵다. 인류는 이미 과거의 팬데믹을 통해, '마녀사냥의 시대'도 경험했고, '공중보건위생의 국가 사회 책임 강화'도 경험했다. SF 서사들을 접하면서 사회 대중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감염 상상력'이 중요한 이유는 언젠가 우리가 지금의 교훈 후에 나가게 될 길의 방향에 그 상상력이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좀비 서사의 감염 상상력

좀비는 부두교 전설에 나오는 움직이는 시체를 의미하는 말이다. 주술이 불러온 신비한 힘에 의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움직이게 될 때 좀비가 탄생한다. 다만 좀비는 자의식이 없고, 살아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을 하기 어려운 존재이다. 따라서 부두교의 전통에서도 좀비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죽지도 살지도 못한 형벌처럼 여겨진다.

대중문화 텍스트에서의 좀비는 누군가를 물어뜯거나 공격하면서 또 다른 좀비를 만들어내곤 한다. 감염자가 스스로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어, 다시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감염병'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SF 서사와 달리, 과학적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논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좀비 서사는 분명히 감염 상상력을 기반으로 창안된 텍스트들이다.²⁰⁾

20) 좀비 서사에 대한 연구들은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송아름, 『괴물의 변화: 문화시대와 '한국형 좀비'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19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3,

‘좀비’ 영화의 시초는 조지 로메로 감독²¹⁾의 영화 <살아 있는 시체들의 밤>(1968)으로 본다. 이 영화에서는 무덤에서 일어나 시체들이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의 움직임은 뻣뻣하고 부자연스럽다. 이들 식인 괴물들은 시체가 많은 묘지와 병원에서 주로 출몰한다. 괴물 발생 이유에 대해서는 금성 주변을 돌던 인공위성이 지구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방사능 영향을 받은 변이 바이러스가 침범한 것이라고 보도된다. 이 괴물들은 공포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행동 패턴이 단순하고 총기나 흉기, 화염에 의해 다시 쓰러뜨릴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영화 <살아 있는 시체들의 밤> 이전에 이러한 괴물의 존재를 표현한 것으로는 리처드 매드슨의 소설 『나는 전설이다』(1954)가 있었다. 어떤 질병으로 인해 죽음의 도시가 된 LA에 홀로 살아남은 로버트 네빌은 흡혈귀들과 싸우면서, 외로움과 고독에 신음한다. 이 흡혈귀들은 햇빛에 약하며, 주로 밤에 돌아다니며 공격한다. 이들이 사람을 물어뜯게 되면 그 사람도 흡혈귀가 되고 만다. 로버트 네빌은 자신이 오래 전, 흡혈박쥐에 물렸던 경험 덕분에 흡혈귀에 대한 항체가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소설의 후반부에, 또 다른 생존자 루스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루스를 통해 흡혈귀 박테리아와 공존하며 살아남은 새로운 인류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들마저도 마구잡이로 공격했던 자신의 행동을 자각한 네빌은 결국 자결을 결심하게 된다.

186-224쪽; 박하림, 『파국의 기원과 멜랑콜리: 2000년대 한국 문화에 나타난 좀비 서사연구』, 『비교문학』 71, 비교문학회, 2017, 5-40쪽; 이동신, 『좀비 반, 사람 반: 좀비 서사의 한계와 감염의 윤리』, 『문학과 영상』 18권 1호, 문학과영상학회, 2017, 33-51쪽; 최지운, 『한국 사극 속 좀비 캐릭터 연구: <창궐>과 <킹덤>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56, 인문콘텐츠학회, 2020, 105-122쪽; 임영훈, 『한국 좀비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부산행>과 <곡성>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연구』 17권 1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21, 223-241쪽.

21)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조지 A.로메로](https://ko.wikipedia.org/wiki/조지_A.로메로))

소설 『나는 전설이다』와 영화 〈살아 있는 시체의 밤〉을 통해 구체화 된 이 흡혈 괴물들은 이후에 부두교 전설에서 차용한 ‘좀비’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부두교의 전설, 흡혈귀 설화들과 인육의 괴물 전설,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등이 융합된 결과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대체로 좀비는 시체가 되살아나 때로 움직이며, 물어뜯기와 흡혈 공격을 통해 사람을 좀비로 감염시키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좀비에 맞서는 이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 있다가, 총이나 흉기로 좀비의 머리나 심장을 공격하여 물리친다.

조지 로메로 감독의 1978년작 〈시체들의 새벽〉은 〈살아 있는 시체들의 밤〉의 후속작이면서, 좀비 영화의 붐을 일으키게 된 작품이다. 〈시체들의 새벽〉의 좀비들은 더 이상 어두운 밤에 불빛이 없는 곳에서만 움직이지 않는다.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은 밝은 조명이 가득한, 자본주의적 상징 공간, 대형 ‘쇼핑몰’이다. 이 영화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좀비2〉, 〈이블데드〉 등이 잇달아 만들어진다.²²⁾

이른바 좀비 영화, 혹은 좀비 서사가 주는 공포의 특징은 흡혈과 물어뜯기, 식육 행위가 유발하는 ‘감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이러스나 세균, 박테리아, 기생충에 의한 감염의 공포는 실제 현실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감염될지 모른다’는 공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공포심일 것이다. 스스로 감염되는 것이 더 두려운 이유는 내가 다시 숙주가 되어 누군가를 감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이다. 확진자가 되어 질병의 고통을 겪는 것도 두렵지만, 나로 인하여 주변사람들이 자가 격리 대상이 되거나 또 다른 감염자가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의무화하지 않아도 대다수 시민들이 알아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했던, 바로 그 ‘감염 상상력’, 마스크

22) 후지타 나오야, 『좀비 사회학』, 선정우 역, 요다, 2017, 14-15쪽.

의 상상력이다.

좀비에 의한 감염 공포가 바로 그러하다. 좀비가 물면 좀비가 된다는 메커니즘은 방금 전까지 좀비떼를 피해 도망치거나 함께 맞서 싸우던 동료나 가족이 갑자기 좀비로 돌변하여 다시 나를 공격해올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더욱 치명적이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감염 상상력은 두려운 현실적 공포이지만, 영화나 게임과 같은 대중서사 텍스트에서 좀비 서사의 감염 상상력은 흥미로운 서사적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아군과 적군, 혹은 선과 악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인물이 좀비와 영웅적으로 맞서 싸우다가, 그 역시 좀비가 되어버리게 되면, 갑자기 좀비에게 감정 이입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후지타 나오야는 『좀비 사회학』에서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좀비들을 '21세기 좀비'라 칭하면서, 20세기 '근대' 좀비들과 비교한다. 20세기 좀비들은 방사능, 바이러스, 화학 물질 등이 발생 원인이며, 사람을 덮치며 공격하지만 발이 느린 편이다. 21세기 좀비는 이와 달리, 발이 빠르고 지능과 이성을 갖추고 있으며, 뇌에 미친 어떤 작용으로 인해 발생되었고, 통솔된 집단을 형성하거나 관리, 공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²³⁾ TV 시리즈 〈워킹 데드〉, 영화 〈28일 후〉, 〈월드워Z〉, 게임 〈바이오하자드〉 등에 나타난 좀비가 21세기 좀비의 예에 속한다.

한국에서 좀비 텍스트는 그리 흔한 것은 아니었다. 1983년 KBS TV 〈전설의 고향〉에서 방송된 '딕대골' 편에는 갑자기 깨어난 시체 이야기가 등장한다. '장사를 지낸 지 3일이 지나지 않은 시체의 다리'를 먹으면 남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도사의 말에 아내가 시체에게 다가가 다리를 자르려는 순간, 시체가 벌떡 일어나 "내 다리 내놔."라고 외쳤다는 유

23) 후지타 나오야, 『좀비 사회학』, 선정우 역, 요다, 2017, 17-18쪽.

명한 에피소드다.

2006년 영화 <어느날 갑자기>의 네 번째 에피소드 '죽음의 숲', 2007년 장훈 감독의 단편영화 <불한당들>, 2012년 옴니버스 영화 <인류멸망보고서>의 <멋진 신세계> 편에도 좀비가 등장한다. 단편영화 <불한당들>에선 2002년 월드컵 응원전을 펼치던 이들이 갑자기 좀비가 된다는 설정이 흥미롭다. 2016년 영화 <곡성>에도 좀비가 등장한다. 2008년 영화 <GP506>, 2014년 영화 <좀비스쿨> 등도 좀비가 등장한다. 하지만 이들 영화들은 대중적 관심을 크게 모으지는 못했거나 좀비의 서사적 비중이 크지 않다. 소설 쪽에서는 김중혁의 장편소설 『좀비들』이 2010년 발표되었지만, 좀비 소설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지는 못했다.

한국 대중문화 텍스트에서 좀비가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08년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영화 <28일 후>를 패러디한, <28년 후> 편을 방송했을 때가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다. 물론 그 전에도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좀비'를 캐릭터화하여 우스꽝스럽게, 혹은 공포스럽게 표현하는 경우들은 있었으나, 좀비를 하나의 서사 구조 속에 담아내려고 한 시도는 흔치 않았다. <무한도전>의 <28년 후> 편은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특성상, 출연자 박명수 씨의 돌발적인 행위로 인해 예정된 서사적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실패로 끝이 났다.

이 무렵의 '좀비' 텍스트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관련 시위대들에 대한 '좌좀', 즉 '좌익좀비'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위대들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를 반대하고,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촛불 문화제'라는 형식의 야간 집회를 강행하였다. 과거 주로 낮에 행하던 시위 문화와 달리, 퇴근 후 야간에 참여하는 집회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반대 성향의 이들에게 이 시위대는 밤만 되면 나타나서 소란을

퍼는 ‘좀비’처럼 보인다는 이유에서 ‘좌익+좀비’라는 의미의 ‘좌좀’이라는 표현이 쓰이기 시작했다. ‘수구 보수 꼴통’이란 뜻을 지닌 ‘수꼴’의 반대말처럼 활용되는 ‘좌좀’은 이념적 성향의 반대편에 있는 이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대표적 혐오 어휘로 지금도 쓰이고 있다. 이때의 좀비는 명확히 배타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이다.

그러다가 2016년 <부산행>은 천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한국 ‘좀비 서사’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연상호 감독은 <부산행>의 프리퀄 형식의 애니메이션 <서울역>과 2020년 후속작 <반도>까지, 이른바 좀비 3부작을 완성했다.



<그림 3> 연상호 감독의 좀비 3부작 포스터들

<부산행>은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열차 안팎으로 좀비들이 출몰하면서, 그 상황으로부터 탈출하여 살아남으려는 인물들의 처절한 사투가 펼쳐지는 영화이다. 영화의 첫 장면은 로드킬을 당한 고라니가 피칠갑을 한 채로 벌떡 일어나 움직이는 장면이다. 인수공통감염병으로서의 좀비 가능성을 시사한 장면이다. 영화의 주인공 석우(공유 분)는 일

반 투자자들의 푼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작전'도 서슴치 않는 펀드 매니저다. 그는 딸 수안과 함께 부산으로 가는 열차를 타게 된다. 열차의 출발 직전, 한 소녀(심은경 분)가 급히 열차에 올라타게 되는데, 그 소녀는 이미 좀비에게 공격을 당한 상태였다. 열차가 출발한 후, 열차 안은 점차 좀비로 감염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 석우와 딸 수안, 고속버스 회사 간부인 용석(김의성 분), 임산부인 성경(정유미 분), 성경의 남편 상화(마동석 분) 등 소수의 사람만이 간신히 좀비의 공격을 피해 살아남는다.

좀비는 사람을 물어 감염시키고, 감염자는 좀비가 된다. 좀비들은 죄 없는 승무원과 승객들을 공격하기에, 관객들은 생존자들을 응원하며 영화를 보게 되기 마련이다. 결국 부산까지 무사히 도착한 생존자는 임산부인 성경과 석우의 딸 수안, 두 여성뿐인데, 이들은 열차 안에서 가장 타인을 걱정하고 함께 살아남으려 노력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약자이다. 이 둘이 끝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들을 공격하려 한 좀비들은 악의 무리로 인식되어야 마땅하겠지만, 사실 좀비가 된 인물들 대부분도 평범하고 선량한 승무원들이거나 승객들이었다. 후반부에 결국 좀비가 되거나 죽게 되지만, 용석처럼 노골적인 악역이 생존해있는 상태에서 좀비와 맞설 때, 관객은 누구에게 감정이입하여 응원해야 할지 혼란을 겪게 된다.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며 좀비들을 맨손으로 물리치는 상화 역시도 자신의 아내만을 위해 수안을 먼 화장실로 보내버리며 위협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응원하기는 어려운 대상이다. 주인공 석우는 수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변 사람과 협력하여 좀비들에 대적하는 인물로 변모해가지만, 여전히 자신이 알게 된 정보를 주변인들과 공유하려 하지 않는 이기적 태도를 취한다. 특히 용석과 석우가 비교적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공

식적으로 전달되는 뉴스보다 개인적 인맥을 통해 접한 ‘사적 정보’를 독점하려 한 덕분이었다.²⁴⁾

감염병의 확산 상황이든, 재난의 상황이든, 생존을 위한 고급 정보를 소수의 개인이 독점하려 하고, 대중들에게는 거짓 정보나 안심하고 ‘기다리라’는 메시지만 전달하게 될 때, 얼마나 큰 비극이 확산될 수 있는지는 2014년 세월호 사고와 2015년 메르스를 겪으며 경험한 바가 있다. 이기적인 생존자들, 특히 용석은 끝내 최후까지 살아남지는 못했지만, 후반부까지 살아남은 것 자체로, 좀비들을 능가하는 최악의 악역 역할로 부각된다.

용석이 노골적 악역으로 각인되면서도, 그의 사례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권력이나 고급 정보, 혹은 약삭빠른 이기적 처신이 필요하다는 ‘현실 자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부산행〉에서 희생적 태도를 취한 기장(정석용 분)이나 노숙자(최귀화 분)마저도 동대구 역에서 결국 좀비들에 의해 희생된다.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영국 총리와 미국 대통령도 감염될 만큼, 바이러스의 감염 대상은 빈부를 가리지 않고 권력에도 구애받지 않지만, 감염된 사람들의 완치 여부는 부와 권력, 그리고 정보의 유무와 무관하지 않다.

일단 좀비가 된 인물들은 모두가 평등한 듯 느껴진다. 선량한 승무원과 야구부원도, 시민들을 돕기 위해 출동한 군인들도, 좀비가 되고난 뒤에는 모두 똑같은 좀비일 뿐이다. 그러나 좀비가 되기 전까지,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달랐기에 좀비는 다 똑같은 좀비일 수 없다. 어떤 좀비는 ‘인과응보’적 처벌로 보이지만, 대부분은 억울하고 안타깝고 불쌍하게 좀비가 되었다.

24) 최은영, 『한국 영화에 나타난 감염의 은유 방식 연구: 〈감기〉, 〈부산행〉을 중심으로』, 『건지인문학』 26호,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416쪽.

〈부산행〉의 프리퀄 격인 애니메이션 〈서울역〉에는 이와 같은 계급적 대립 상황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울역〉에서 처음 좀비가 되어 등장한 것은 노숙자 노인이었다. 노숙자들을 통해 확산된 좀비떼들을 피해 탈출하는 이들은 기웅과 석규, 그리고 혜선으로 대표된다. 노숙자들은 술을 마시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다고 하거나, 서울 시내 건물들 대부분을 내손으로 지었다고 말할 만큼 한때 건실하게 일하던 이들이었겠지만,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낙오된 존재들이다. 그들이 좀비가 되지 않을 기회는 있었다. 쓰러진 동료들을 위해 자리를 내주거나, 서로 양보를 했더라면 말이다.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있던 중산층들이나 공무원들은 더욱 더 양보나 배려에 인색했다. 결국 첫 번째 노인이 좀비가 되면서, ‘좀비 바이러스’는 건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된다.

좀비떼로부터 탈출하려던 기웅은 여자친구인 혜선을 성매매로 내몰며 살아가는 인물이지만 그런 자신의 행동에 그다지 반성도 하지 않는다. 혜선은 자신의 잘못된 일을 깨닫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아빠라고 자칭하며 혜선을 찾아 헤매던 석규는 사실 혜선을 성매매로 팔아넘기던 포주였음이 밝혀진다. 이것은 〈서울역〉의 후반부에 가장 충격적인 반전일 것인데, 혜선을 응원하던 관객들 모두를 혜선과 함께 끔찍한 절망에 빠뜨리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좀비들과 맞서던 기웅과 석규는 회현역에서 차벽을 두르고 시민을 위협하는 경찰과 군인을 마주친다. 혜선은 시위대와 만나 간신히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 그들은 차벽 너머에 존재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 혹은 경찰에게 해산을 경고당하는 시민일 뿐이다.

좀비떼들이 아니라 시위하던 시민을 향해 최루탄을 발포하는 군경을 제외하면, 〈서울역〉에서의 시위대나 노숙자들이나, 이미 좀비가 되어버린 사람들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보인다. 〈서울역〉에서 보여주

는 감염 상상력은 대단히 비관적이다. “세상이 다 썩었는데 살아서 뭐하겠어.”라는 대사는 이미 좀비와 좀비가 아닌 생존자로 구별 짓는 것이 무의미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울역〉에서의 노숙자는 〈부산행〉에서 “다 죽었어.”라는 말을 반복하며 열차에 올라탄다. 그는 〈부산행〉에서 여러 사람을 살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인물이 되어 있다. 그러나 〈부산행〉에서 기관차 앞머리에 매달린 좀비들이 석우의 발길질에 결국 떨어져나가듯, 좀비이든 아니든, 그들이 끝내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끝내 〈반도〉에서는 ‘반도’를 탈출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희망도 없는 절망적 지옥도가 그려진다. 〈반도〉의 결말이 어색한 가족주의 신파로 끝맺는 것을 희망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연상호 감독의 좀비 3부작을 통해 표현된 좀비 바이러스의 ‘감염 상상력’은 비관적 전망을 방치했을 때 다가오는 비극을 보여준다. ‘감염병’의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이 아니라, 권력과 빈부의 기울기 위에 개인을 맡겨두는 것이 얼마나 지옥처럼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경고한다.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조선시대 배경의 좀비 서사 〈킹덤〉은 보다 복잡한 ‘감염 상상력’을 내포하고 있다. 하층민 거주지의 묘지에서 시작되는 미국의 좀비 영화들이나 노숙인에서 시작된 연상호 감독의 연작들과는 달리, 〈킹덤〉에서 좀비의 출현은 임금에서 시작된다. 임금이 좀비가 된 이유는 영생불사를 꿈꾸며 생사초 즙액을 문힌 침을 놓았기 때문이다. 부두교 전설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욕망이 좀비의 출현을 가져왔음을 명백히 했다는 점이 방사능이나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서 시작되었다는 조지 로메로의 좀비 세계관과는 차별화되어 있다.

특히 〈킹덤〉의 세계관에서 좀비는 1세대 좀비와 2세대 좀비로 나뉜다. 생사초 침으로 되살아난 좀비는 다시 누군가를 감염을 시키지는 못

한다. 좀비에게 물린 사람은 그냥 처참한 몰골로 죽을 뿐이다. 그러나 그렇게 죽은 사람의 인육을 먹을 경우, 감염 전파력을 가진 좀비가 된다. 하층민들에게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이유는 임금과는 달리, 절망적 가난 때문임을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권력자는 욕망에 의해, 하층민은 절망에 의해 파멸해간다.

좀비 감염의 메커니즘도 그저 물리면 감염된다는 식이 아니라, 생사 초에 붙어 있던 기생충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는 기존의 좀비 서사들과 달리,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으로 좀비 감염을 설명하려 한 것이다. 이로써 좀비들의 햇빛과 온도에 따른 반응의 차이도 기생충의 성질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해지며, 물에 의해 치료될 수 있다는 치유법도 설득력을 얻게 된다.

〈킹덤〉에는 역병의 확산 와중에, 권력만 탐하려는 권력자들의 모습이 다각도로 그려져 있다. 문제 해결의 열쇠와 민중들의 원한을 풀어줄 인물로서 왕조의 제 2권력자인 세자가 등장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추후에 발표될 시리즈에서 역병 극복의 희망이 세자의 힘에서 비롯될지, 민중의 힘에서 비롯될지를 주목하면 더욱 흥미진진할 것으로 생각된다.

5. 나오며

일반적 동물의 번식과 달리, 바이러스의 증식은 다른 생명체를 공격하는 파괴 행위인 듯 여겨지고, 좀비는 흉악한 폭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게 되기 쉽다.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은유적 표현이 내포하는 의미처럼, 바이러스는 결합이거나 오류이거나 위협적 공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로 인한 감염이란 생명의 파괴나 위해(危害)로만 받아

들이기 쉽다.

수많은 좀비 서사의 공통적인 지점은 자의든, 본능이든, 좀비가 다른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좀비로 만들어버린다는 부분이다. 좀비 서사의 가장 특징적인 감염 상상력이라 할 수 있다. 좀비 서사에서는 이 상상력을 활용하여 공포를 자극하거나 역동적인 액션 장면을 만들거나, 캐릭터에 대한 관객의 감정이입 방향을 전환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다양한 서사적 전략을 연계시킨다. 그런데 사실, 좀비 감염의 메커니즘은 거의 모든 생명체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바이러스든, 일반적인 동물이든 마찬가지다. 멀리서보면, 인간은 어쩌면 바이러스와 비슷하다. 유전자, 혹은 모든 생명의 본질이 그러하겠지만, 끊임없이 번식나 복제를 통해 최대한 자신과 유사한 존재들을 많이, 멀리 전파시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결국 바이러스이든, 감염 확진자이든, 그것들(그들을) 배타적으로 보면서, ‘나를 감염시킬 타자적(他者的) 위험 요소’로 혐오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역의 원칙은 ‘내가 감염될 수 있고, 내가 다시 누군가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공동체적 연대 의식이다.

2021년 1월 방송된 EBS 다큐프라임 <포스트코로나>의 ‘제4부: 바이러스 인간’ 편²⁵⁾에서 보여준 것처럼, 인간을 구성하는 DNA의 45%는 레트로바이러스 유래 유전자가 차지한다. 지금의 인간이 되기까지 바이러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지구 생명의 근원인 바다 속 세균의 증식이 지나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것도 바이러스다. 이 다큐멘터리의 인터뷰에서, 바이러스 면역학이 전공인 서울대 안광석 교수는 “인간의 세

25) EBS 다큐채널 다큐프라임 <포스트코로나>, 2021.2.5.

<https://www.youtube.com/watch?v=tchXQgsrP0s>(2021.4.18, 접속)

상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세상에 인류와 다른 동물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인류가 10세 시대를 넘어 150세, 200세 시대를 열게 될 것이며 수많은 불치병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인류는 새로 발견한 아주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1년이 넘는 세월동안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 팬데믹의 시대를 맞아 인류가 자만하지 않고, 인간 사회의 원리와 윤리, 더 나아가 지구 생태계의 보전과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생태계 사이에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때, SF와 좀비 서사가 드러내주었던 감염의 상상력은 적지 않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초엽 외, 『팬데믹: 여섯 개의 세계』, 문학과지성사, 2020.

메리 셸리, 『최후의 인간 1, 2』, 김하나 역, 아고라, 2014.

김성수 감독, 〈감기〉, 아이러브시네마, 2013.

스티브 소더버그 감독, 〈컨테이션(Contagion)〉, Warner Bros. Pictures, 2011.

연상호 감독, 〈서울역〉, 다다쇼, 2016.

연상호 감독, 〈부산행〉, 영화사레드피터, 2016.

연상호 감독, 〈반도〉, 영화사레드피터, 2020.

김성훈 연출, 〈킹덤〉, 에이스토리, 2019.

김성훈·박인제 연출, 〈킹덤〉 시즌2, 넷플릭스, 2020.

2. 논문과 단행본

박길성 외, 『전염의 상상력』, 나남출판, 2017.

박선주, 『메리 셸리의 『최후의 인간』에 나타나는 전염병과 근대 정치』, 『인문논총』 78권 1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363-392쪽.

박재영, 『개념의료』, 청년의사, 2018.

박하림, 『괴국의 기원과 멜랑콜리: 2000년대 한국 문화에 나타난 좀비 서사연구』, 『비교문학』 71, 비교문학회, 2017, 5-40쪽.

송아름, 『괴물의 변화: '문화세대'와 '한국형 좀비'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19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3, 186-224쪽.

이동신, 『좀비 반, 사람 반: 좀비서사의 한계와 감염의 윤리』, 『문학과 영상』 18권 1호, 문학과영상학회, 2017, 33-51쪽.

이윤종, 『바이러스의 살육성: 〈괴물〉과 〈감기〉의 기생체』, 『영화연구』 87, 한국영화학회, 2021, 253-288쪽.

임영훈, 『한국 좀비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부산행〉과 〈곡성〉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연구』 17권 1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21, 223-241쪽.

최성민, 『판타지의 리얼리티 전략과 서사적 감염: 소설 『흡혈귀』와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5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19, 397-428쪽.

- 최은영, 『한국 영화에 나타난 감염의 은유 방식 연구: 〈감기〉, 〈부산행〉을 중심으로』, 『건지인문학』 26호,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401-421쪽.
- 최정민, 『전염병의 서사와 가상공동체』, 『인문언어』 10, 국제언어인문학회, 2008, 367-389쪽.
- 최지운, 『한국 사극 속 좀비 캐릭터 연구: 〈창궐〉과 〈킹덤〉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56, 인문콘텐츠학회, 2020, 105-122쪽.
- 후지타 나오야, 『좀비 사회학』, 선정우 역, 요다, 2017.
- Ahmad, Farida B. et al., "Provisional Mortality Data — United States, 2020", *MMWR* 70(14), CDC, 2021, pp.519-522.

3. 기타자료

EBS 다큐채널 다큐프라임 〈포스트코로나〉, 2021.2.5.

<https://www.youtube.com/watch?v=tchXQgsrP0s>(접속 2021.4.18.)

Abstract

Imagination of Infection in SF and Zombie Narratives

Choi, Sung-Min(Kyung Hee Univ.)

The aftermath of the COVID-19 virus continues. There are two potential fears behind the various preventive and quarantine measures, : the fear that “I may be infected” and the fear that “someone may infect me”. This subconscious is built on the ‘imagination of infection’. 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science fiction(SF) narratives and zombie narratives that influenced our imagination of infection. And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how SF novels and movies understand and express “infection”, and how zombie narratives reveal “infection” and its horror.

Mary Shelley’s novel “The Last Man” revealed the paradox that the fear of an infectious disease gave humanity an opportunity for reflection. The films <Contagion> and <The Flu(*Gangsi*)> showed that fear and aversion to infectious diseases can lead to riots and conflict. Zombie narrative is a genre that most dramatically expresses the horror of infection. Director Yeon Sangho’s zombie trilogy, including <Train To Busan(*Busanhaeng*)>, reveals that people around you can turn into the most dangerous source of infection. Through SF and zombie narratives, we can realize that humanity must have a humble sense of solidarity, ethics, and empathy in the face of infectious diseases.

Through this narrative texts, we can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 imagination of infection. Imagination of infection is the basis for understanding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spread of infection, the process and future prospects.

(Keywords: Science fiction(SF), Zombie, Covid-19, Pandemic, Infection, Imagination of infection)

논문투고일 : 2021년 5월 10일

심사완료일 : 2021년 6월 4일

수정완료일 : 2021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1년 6월 15일